



“국정원 공안 물이 투쟁으로 돌파한다”

국정원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 “잡은 손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

“금속노조와 국가보안법폐지대책 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노동운동 공안 물이가 도를 넘었다”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조와 대책위는 서울 서초구 내 공동 국가정보원 정문 앞에서 ‘간첩조작, 공안물이 중단하라, 국가정보원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다.

지난 3월 27일 검찰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전·현직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네 명을 구속했다. 국정원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대공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색깔론’에 힘을 싣고, 법률이

금지한 ‘국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국정원이 보수 정권 때보다 ‘활동가 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이 정치·사상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국보법을 철폐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구시대 유물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노동조합의 입과 발을 묶고 있다”라며 “윤 정권의 노동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5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면 돌파해야 할 시점이다”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장은 “윤석열은 노동자들이 분노의 화살을 정권과 국정원에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며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안 물이 노동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청지회 부지회장은 “정권과 자본이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도 모자라 간첩까지 조작한다는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며 “잡은 손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덴소자본은 고용합의 파기 철회하라”

한국와이퍼 불법 대체 생산 중단, 공권력 폭력 침탈 규탄 결의대회 ... “금속 승리의 역사 이어간다”

위장 청산 먹튀에 맞서 투쟁하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악천후를 뚫고 경남 창원 덴소코리아 본사에서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4월 5일 오후 ‘한국와이퍼 불법 대체생산 중단, 설비 반출 공권력 폭력 침탈 규탄, 생존권 사수 금속노조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규선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투쟁사에서 “한국와이퍼 동지들은 국정감사, 특별근로감독, 단식, 일본 원정투쟁까지 전개하며 오늘 여기까

지 왔다”라며 “연대의 힘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금속노동자들이 덴소 자본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모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윤미 분회장은 “3월 15일 경찰은 기동대를 앞세워 노동자들 방패로 밀어붙이며 자본의 용병으로 나섰다”라며 “노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했다는 경찰청장의 말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규탄했다.

최 분회장은 “일본 자본 위장

청산 저지 투쟁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금속 동지들의 승리 역사를 한국와이퍼분회가 반드시 이어가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지난 3월 15일 경찰은 한국와이퍼에 700여 명 규모의 기동경찰 등을 동원해 덴소와 한국와이퍼의 설비와 제품을 반출을 도왔다.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은 일본 덴소 자본의 먹튀 행각을 널리 알리는 선전전 활동을 벌이며, 안산공장 현장을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다.

2023년 금속노조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모든 사업장' 내에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모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노동조합이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1항)

매년 1차례 이상 사업장의 모든시설·설비·공정,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기록 남겨야 함.

참여하는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항)

유해위험요인 찾을 때, 개선대책 수립할 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때!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예측된다면,
위험성평가를 통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위험성평가



전국금속노동조합